

‘해남소통넷’ 군민과의 소통창구 역할 ‘톡톡’

2019년 개발...1만7700명 가입
군민 고충 접수 생활 안내 등
고령자 위해 쉽고 간결한 구성
내일 문예회관 5주년 기념행사

해남군이 운영하는 ‘해남소통넷’이 군과 군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민이 궁금한 사항이나 생활민원처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을 작성해 신청한 후 답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해남군에서는 군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해남소통넷에 접속해 바로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해남군은 소통넷 개발 5주년 기념식을 갖고 사용법 안내 등 홍보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군민 전용 소통 플랫폼인 해남소통넷이 지난 2019년 개발된 후 지금까지 1만7700여명이 가입한 가운데 하루평균 900여건의 방문이 이뤄지며 활

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30만건이 접속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데는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 구성을 감안해 가장 쉽고 간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뉴 구성을 도입한 게 컸다.

군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소식을 제공되는 ‘해남소식’,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 활동한 사진이나 자유로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우리군민’ 코너, 지역마다 기부자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부소식’ 코너, 부서별로 자체 개발된 모바일 앱을 탑재해 제공되는 ‘공공앱’ 코너 등을 구성해 군민들이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소통넷내에는 해남장난감 도서관 등 8개의 공공앱도 탑재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군민들이 생활 속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군민들이 소통넷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남소통넷은 혁신적 기술과 군민중심의 정보화 서비스로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등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해남소통넷 개발 5주년을 기념해 16일부터 19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 군민 감사 행사를 갖는다.

해남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 및 기 가입한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행운의 뽑기, SNS 자랑하기 등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며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 최초, 해남군민 전용 앱인 해남소통넷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해남소통넷이 군민소통의 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선정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무안군은 2024년도 제1회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12개 업체 23개 제품을 추가 선정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에 대비해 고액 기부자 대상 고가의 제품을 비롯한 무안의 낙지, 양파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발굴 등 답례품을 분야별로 다양화하고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답례품은 △국내산 자포니카 민물장어 △국내산왕새우 △생/건표고 버섯세트 △창화탕 선물세트 △해오름쌀 간양파 선물세트 △초의꽃잎차 세트 △캠핑채어 △무아닝굿즈세트 △뭇난이미슬관 골프세트 △위스키 스톤 △2인다가세트 △루담청자유 주병세트 등이다.

무안군은 기존의 답례품을 포함해 총 40개 업체 59개 제품의 고향 사랑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며 향후 공급업체별 사업장 방문을 진행하여 답례품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답례품 제공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무안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우리 군만의 특색과 매력이 가득한 최상 품질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자를 더욱 예우하고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로컬푸드 발효식품 전문가 양성
강진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강진군 농어촌개발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지난 10일 발효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강진 로컬푸드 발효식품 전문가 양성 교육’을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효음식 메뉴 개발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된 이번 교육은 10일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8월14일까지 진행된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으로 활동 중인 발효연구회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녹색문화대학 발효과정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 중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연구회로 정기적인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 내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은 △소금을 활용한 발효식품 △유제품 및 곡물 발효식품 △콩단백질과 발효식품 △밀기트 및 발효식품 활용 상품 제작과 포장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으로 진행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군, 음식점 할인 쿠폰 증정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대상

완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해양치유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는 해양치유센터 이용과 더불어 안도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할인 쿠폰 증정 대상은 해양치유센터 방문객(군민 제외)으로 입장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1인당 1만원권의 음식점 할인 쿠폰 1장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 사용처는 영업장 주소가 완도읍으로 되어있는 일반·휴게음식점(식사, 커피, 분식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할인 쿠폰 사용 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2000매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음식점에서는 매일 말일 할인 쿠폰을 모아 완도군청 위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쿠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제헌절을 앞두고 관내 가구에 태극기를 달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협의회,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무안 일로읍 새마을협의회(회장 김계태)는 지난 12일 제헌절을 앞두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14일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 회원 70여 명이 참석하여 의산리 및 죽산리

등 120여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지지대가 미설치된 가구에는 지지대를 새로 설치하는 등 태극기를 계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김계태 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주민 모두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하루가 되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 사랑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일로읍장은 “제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참여해 준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일로읍 주민들의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해남군, 26일 송호해변 여름 축제 연다

3일간 저녁 공연도 펼쳐져

해남군 송호해수욕장이 지난 12일 개장한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4 송호해변 여름축제가 열린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송호해수욕장에서는 12일 용왕제를 시작으로 개장기간인 다음달 18일까지 대형 모래조각 전시회 및 체험, 수상레저 프로그램, 낭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워터슬라이드 등 에어바운스로 조성된 해변 놀이터가 8월4일까지 운영된다.

축제 기간에는 플라이보드와 해변 보트 체험, 우리가족 모래조각 만들기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흘간 저녁마다 신나는 공연도 펼쳐진다.

26일에는 미스김, 황민우·황민호 등이 출연하는 트롯&EDM 공연이 송호해변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며, 27일에는 지역예술인과 대한민국 대표 펑크 밴드 ‘크라잉넛’의 신명나는 공연에 이어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플라이보드 공연과 시원한 워터락 공연이 3일간 이어지며, 해남의 맛깔난 먹거리로 구성된 낭만펍까지 오감이 즐거

운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망갈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송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 적합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망갈마을의 청정 바다에서 낭만과 심이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남도 대표 휴양지인 송호해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취약계층 폭염예방 물품 지원
강진군, 식염 포도당 배부

강진군은 폭염 종합대책 일환으로 무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염 포도당 10만정을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진군은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5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폭염 대응 TF팀을 편성하고, 관내 무더위쉼터 300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군청 폭염취약계층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식염 포도당을 배부하고 섭취 방법 및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했다.

폭염 대비 행동요령은 △무더위 기상 상황 수시 확인 △충분한 물 섭취 △오후 2~5시 야외 활동 자제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 이용 △규칙적인 환기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이 폭염 예방 활동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 이번 물품 배부는 전액 도비로 추진했으며, 식염 포도당은 논밭 작업 등으로 땀의 증발, 탈수 등 전해질이 요구될 때 저하된 생체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피로를 해소하고 발한량을 조절시켜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장마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실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